

# 승리제단 열심히 나오는 건 효자가 되려고 나오는 것

6면에 이어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창조론을 써놓고, '창조론이다' 해놓고 오늘날 그럴 가르쳐주고 있으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참말로 한심한 노릇이죠? 그래? 안 그래?

###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조상의 피

그래서 이제그대로 사람이라는 건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아 하나님 자식이 틀림없죠? 왜 그러나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피 작용이야? 사람의 마음이 물 작용이야? 피 작용이죠? 사람의 마음은 피 작용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우리의 피는 바로 조상의 피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야?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서 돼 있는 피야? 조상의 피죠? 우리는 조상의 피야. 여러분들, 조상의 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 한 명도 없네. 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상의 피야. 긴소리 할 거 없어. 아시겠어요?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 있어? '조상의 피가 아니다.' 하고 말할 사람 있어? 반대하는 사람 한번 해 봐. 조상의 피가 아니라고 조상의 피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피는 조상의 피이니가 마음이 바로 조상의 피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조성될까? 조성 안 될까? 조성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 누리셨어? 못 누리셨지마는 여러분들의 피는 조상의 핏데 조상은 영생을 누리셨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고 영원무궁토록 살자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경험을 한 고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경험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그 피의 작용에 의해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들고 얘기해 봐. 여기. 이 사람 말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죠?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죠? 사람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죽는고로 죽을까? 이제 그 목만 죽는고로 죽을까? 생명이 죽는고로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몸속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고로 그리고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로 그리고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저가지고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종교야? 종교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 세계의 종교를 물거품 만드는 학설

그래서 생명이 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영이 생명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또 마음이라고 쓰여 있죠? 마음 자체가 생명이고, 이제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그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영혼인데 바로 마음이 영혼이요, 마음이라는 건 피 작용이고로 피가 영혼이고로 그리고로 죽은 사람의 피가 우리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거야?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를 물거품 만드는 학설이야!

이제, 여러분들 듣기에는 간단하게 들리는 것 같지마는 이 세상 종교가들은 전부 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러죠? 사람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천당, 지옥 갈 수 있어? 죽은 사람은 지옥은 갈 수 있지만은 어딘 못가? 천당은 못가, 죽은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가들은 전부 다 영혼의 정의를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그리고로 분명히 성경과 불경에는 이제그대로 영혼이라는 것이 마음이고, 영혼이라는 것이 곧 생명이고로 그리고로 피 자체가 생명이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정확한 말이야? 근사한 말이야? 정확한 말씀이죠?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고로 그리고로 현재 살아 있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지고 죽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조상님들의 영이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야? 자신만 영생을 누리는 거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야. 효자 중 효자가 될까? 불효자 중 불효자가 될까? 효자 중 효자야!

영생 얻는 게. 승리제단 열심히 나오는 건 효자가 되려고 나오는 거야? 불효자가 되려고 나오는 거야? 효자가 되려고 나오는 거죠? 조상님도 영생을 얻고 자신도 영생을 얻는 거

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몸이 이제 자신의 흙 몸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몸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이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몸이요, 5대 조부, 6대 조부, 10대 조부, 20대 조부, 30대 조부, 100대 조부, 200대 조부, 300대 조부, 500대 조부, 1000대 조부 그냥 조상 대대로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처신을 잘해야 돼. 조상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렸어? 누구에게 달렸어? 자신에게 달렸어. 아시겠어요?

### 영원무궁토록 살려니까 세상을 둥글둥글 살게 돼

자신이 영생 얻음으로 말미암아 조상대대로의 영혼들이 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것도 모르는 게 맹추야? 맹추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 맹추야. 아시겠어요?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을 이 사람이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바로 이제그대로 나라는 개체의 식이 없어진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의 확신이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피가 썩어? 안 썩어? 피가 안 썩어. 피가 왜 썩느냐면 놀라면 피가 썩고, 근심 걱정하면 피가 썩고, 이제 또한 낙심을 하면 피가 썩어? 안 썩어? 낙심하면 피가 썩죠? 놀라고 낙심할 때 피가 많이 썩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할 때 피가 썩고, 이제 화를 낼 때 피가 썩고, 사람 미워할 때 피가 썩어요. 그런데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바로 놀랄 수가 있을까? 낙심할 수 있을까? 낙심할 수가 없어. 낙심할 수가 없고,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고, 화를 내려야 화를 낼 수가 없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고로 그리고로 영원무궁토록 살려니까 바로 세상을 둥글둥글 살게 될까? 모가 나게 살게 될까? 세상을 둥글둥글 살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너무 오래오래 살려니까 둥글둥글 살아야 오래 살죠? 그래? 안 그래? 모가 나게 살면 오래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로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바로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 논하죠? 그리고로 영생의 확신이 생명과 같아요.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생명과 같아요.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명과 같아요. 이제

그러므로 희생적인 마음이 생명과 같아요,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생명과일이 뭔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 있었어? 없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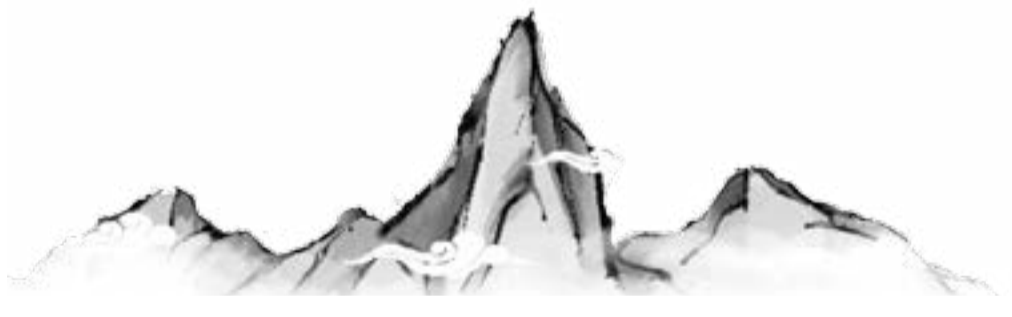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날 승리제단에서 내리는 이슬 성령이 뭐예요? 생명과일이죠? 그것도 생명과일이 많아서 좋죠? 이슬도 생명과일이고, 영생의 확신도 생명과일이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도 생명과일이고, 희생적인 마음도 생명과일이고, 이제 선한 마음도 생명과일이나 이제그대로 생명과일 먹기가 쉬워? 안 쉬워? 그럼 구세주를 바라보면 눈으로 뭘 먹는 거야? 바라보면 생명과일을 먹는 거야. 구세주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마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귀로 뭘가 들어와? 귀로 생명과일을 먹는 거죠? 이걸 승리제단에 와서 듣는 거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미륵불을 만나기만 하면 죄가 소멸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생명과일을 먹으면 바로 죄라는 건 마귀의 영이고로 마귀의 영이 죽어? 안 죽어? 마귀의 영을 죽이는. 마귀의 영이 죽는 마귀의 독약이 생명과일이죠? 마귀의 독약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 신이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 도망 안 가? 꿈꾸니까 빠지라고 그냥 차가 씩씩 달리는 차길로 막 도망가. 그 왜 그러지 않아? 왜 그렇까? 마귀가 안 죽으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쳐 보면 마귀가 죽어. 아시겠어요? 쳐 보기만 보면 마귀가 죽는 고로 틀림없는 생명과일이야? 이제그대로 근사한 생명과일이야? 틀림없는 생명과일이죠?\*

**※2025년 3월 10일 본부제단 예배 말씀으로 인터넷 <https://www.victor.or.kr/sub401/250310-920114/>에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 구세주는 언제나 설교 대본 없이 온전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세주 이긴자는 매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매일 비슷한 말씀 같으나 매일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고로 육비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새겨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인간 조희성의 말이 아닙니다. 이긴자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70회

## 백서중심전후삼(白鼠中心前後三)을 심각자(心覺者)가 누구런가?



### 格菴歌辭(七) 격암가사

無窮歲月(무궁세월)지나나니  
死末生初(사말생초)보단말가  
운수있는저사람은 生初(생초)보아  
歸一(귀일)지만 운수없는저사람은  
생초(生初)몰라 鑿凶(귀흉)하네

무궁한 세월이 지나감으로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영생의 새 세상을 보게 된다는 말인가? 살 운수(運數)가 있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아차리고 마귀를 이기신 삼일제단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만 운수 없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지 못하고서 흉한 죽음(마귀)의 길로 돌아가네.

### 弓乙圖歌(一) 궁을도가

此時訪道翁君子(차시방도첨공자)들  
弓乙何不知(궁을을을하부지)  
左弓右弓弓(좌궁우궁공궁)이요  
臥立從橫乙(와립종횡을을)이라  
泛濫無味弓(범람무미궁을)일가  
深索有理弓(심색유리궁을)이라  
弓理致(궁공이치)알랑이면  
兩白之理心(양백지리심)각각하소  
先後天地通(先後천지통합시)에  
河洛圖書兩(하락도서양백)이라  
兩白之意(양백의의)알라거든  
兩白心衣(양백심의를)파세지라  
衣白心白(의백심백의)백심백의요리  
心如琉璃(心如琉璃)정순(정순)이  
大小白之兩山(대소백지양백산)은  
天牛地馬(천우지마양백)이요  
弓弓之圖詳見(궁공지도상견)이면

左山右山兩山(좌산우산양산)이니  
所謂兩山兩白(소위양산양백)이요  
亦謂兩山雙弓(역위양산쌍궁)이라

도(道)를 찾는 여러분들, 궁공을을을을 어찌 모르는가? 좌궁우궁이 궁공(弓弓)이요 즉 궁(弓)자가 등을 지면 불(擘) 보(拂) 불(拂)이요 을을(乙乙)이 하나씩 높고 하나는 일어서고 가로세로로 합한 것이 만(卍)이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궁을의 뜻망을 모르니라. 그러나 궁을을을 깊이 찾아보면 심오한 이치가 있느니라. 궁공의 이치를 알려면 먼저 양백의 이치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선천(先天) 하도와 후천(後天) 낙서가 통합하여 나오는 것이 양백이니라. 양백의 뜻을 알려면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것(의백심백의)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오묘한 이치는 마음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대백(大白)과 소백(小白)이 양백(양백산)이며 천우지마(天牛地馬)도 양백이요. 궁공(弓弓)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좌산(左山)과 우산(右山)이 바로 양산(兩山)이요 소위 양산이 양백이요 역시 양산이 쌍궁(雙弓)이니라.

東西多教來合(동서다교래합)하소  
弓乙外(궁을외)는 不通(불통)일세  
어서오소파닌차로  
不老不死仙境(불로불사천경)일세  
南海東半紫霞島(남해동반자하도)는  
世界萬民安心地(세계만민안심지)요  
保惠大師(보혜대사)계신곳이  
弓乙之間仙境(궁을간천경)일세  
失時中動(실시중동)부디마소  
未動而死(미동而死)말동이사기면한다  
白鼠中心前後三(백서중심전후삼)을  
心覺者(심각자)가누구건  
三豐兩白(삼풍양백)찾자마소  
無誠知者(무성지자) 헛수(苦)고라  
三豐之意(삼풍의의)알라거든  
三神山(삼신산)을 찾으려면  
祈天禱神(기천도신)안코될가

동서양의 모든 종교들은 동방 땅 한국으로 와서 통합하소. 궁을심승(弓乙十勝)의 도(道) 즉 정도령의 영원한 생명의 도(道) 외(外)에는 천하만국에 다 통할 수 없음일세. 아서 오소. 피난처로 즉 궁을심승(정도령)의 영생지도(永生之道)로. 그곳은 불로불사천경(不老不死仙境)이요. 동반도 남조선 자하도(紫霞島)는 세계만민의 안심처(安心處)요. 보혜대사(保惠大師)

## 兩木(양목: 두 감람나무) - 朴泰善(박태선)과 彌勒(미륵) 조희성님

〈박태선〉이라는 성인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할 성인이 나오니 이 두 성인을 일컬어 대성군자 이존사(大聖君子 二尊)라하고 격암은 표현했다.  
伽耶聖室桃源境(가야성실도원경)은 地上仙國稱號(지상천국칭호)로서 最好兩弓木人(최효양궁목인)으로 十八術誕生(십팔술복출탄생)하니 三聖水源(삼성수원) 三人之水 羊一口의 又八(삼인지수 양일구 우팔)일세. 修道先出容天林(수도선출용천박)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塌(천붕지탄)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塌(천붕지탄)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塌(천붕지탄)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塌(천붕지탄)을 世人不知(세인부지)모르거든  
白面天使黑鼻公(백면천사흑비공자) 嶺上出人(령상출인) 대장으로 三聖一合神人動作(삼성일합신인동작) 任意出入(의의입출)을 一天下(하)의출입일천하에 石白海印天權(석백해인천권)으로 天下掃蕩降魔世(천하소탕강마세)를 世人嘲笑譏弄(세인조소기롱)이나 最後勝利(최후승리)궁공일세. 彌勒世尊(미륵세존)無量之意(미륵세존무량의) 宇宙之尊彌天(우주존미천)이요, 着金冠(착금관)의 馬首丹粧(마수단장) 飛龍馬(비룡마)의 勒馬(력마)로서 儒佛仙運(유불선운)三合一(유불선운삼합일)의 天降神馬(천강신마)彌勒(미륵)기회일세 - 「도부신인편」  
위 문장의 뜻은, '가야는 영적인 뜻으로 제단(室)을 가리키는

말이며 복숭아가 만발했다는 무릉도원과 같이 땅위의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활(弓)의 대명사인 두 목인이 나오미어! 이 얼마나 좋은가. 박씨(朴氏)가 탄생하니 세 성인의 생령수의 근원으로 (그의 이름은) 태(泰:三人) 선(善:羊一口)이다. 도를 닦아 하나님의 얼굴을 한 박씨를 먼저 내니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사)날 길 있다'는 속담을 이긴자(十勝)에게 물어보소. 모든 나라의 피난처를 만년 전에 미리 정하여, 산꼭대기에 〈백면천사흑비공자〉의 별칭을 가진 영의 세계의 대장을 배출하니 세 성인이 합하여 신인 조희성님이 탄생하여 천하우주를 마음대로 출입하며 해인의 하늘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박멸소탕시키는데, 세상사람들이 (몰라보아) 조종하고 횡혹하나 최후의 승리는 弓(하)일세. 미륵부처의 미륵이란 말에는 무한한 뜻이 있으니 彌(미)지는 우주의 가장 궁극한 존재라는 뜻이요, 勒(력)지는 금관을 쓰고 말머리 모양으로 단정한 하늘을 나는 龍馬(용마)라는 뜻으로 유교, 불교, 선도를 하나로 합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낸 天馬(천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삼팔 이복에서 태어난 박태선이라는 분에게 하늘나라를 회복할 사명을 부여했으니 (三八)以上. 出於聖人 天授大命: 삼팔이복 출어성인 천수대명 - 새 41장 이 분은 두 성인을 키워 내는 주인공이다.\*

=정도령)가 계시는 선경(仙境)이니라. 중입(中入)의 때에 정도령을 만나는 일을 부디 놓치지 마소. 때를 놓쳐 마지막에 움직이면 죽으니 가려할 뿐이로다. 경자(庚子)를 중심으로 전삼(前三)은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이고 후삼(後三)은 신축(辛丑) 임인(壬寅) 계묘(癸卯)이다. 그러니까 정유부터 계묘까지 7년 사이에 일어난 천지공사의 비밀을 마음에 깊이 깨달은 자가 누구이런가? 정성과 지혜가 없는 자는 헛수고라. 삼풍양백(三豐兩白)을 찾지 마소. 삼풍의 뜻을 알려면 삼신산(三神山=정도령)을 찾으시오. 삼신산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될 수 있을까?\*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적인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